

지역 IP콘텐츠 활성화 위한 정책전환 급하다

광주전남연구원, 창작기반 기업·인력 수도권 집중 국립작가원 설립 제안·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강조

최근 국내·외 OTT 플랫폼에 국내 오리지널 IP를 소재로 제작된 드라마, 영화 등이 인기몰이를 하며 오리지널 IP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IP콘텐츠 활용 정책이 창작기반 구축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8일 광주전남 정책Brief ‘OTT 전성시대, 지역 IP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발간을 통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플랫폼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IP콘텐츠 활용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안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실태조사결과에 따

르면 지역의 IP 창작인력 비율이 서울 52.3%, 경기도 25.7%, 인천 4.4%인 반면 광주·전남지역은 각각 1.6%와 0.9%로 창작기반 기업 및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IP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신생기업으로 종사자들의 숙련도가 낮아 채용인력의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공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하다는 것이 다.

지역 IP콘텐츠 지원사업의 경우,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 시즌2가 넷플릭스에 론칭되는 등의 성과가 있으나 콘텐츠 뿌리산업이라 할 수 있는 IP콘텐츠산업의 육성이나 산업생태계의 창작기반은 아직 미약한 상태다.

민인철·문경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지역 IP콘텐츠 지원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성, 지역성 및 문화적 가치에 치중돼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 대중성 있는 스토리를 발굴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IP콘텐츠 제작의 활성화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 ▲IP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창작 인프라 구축 ▲IP콘텐츠 전문 신산업체의 체계적 육성 ▲IP콘텐츠 제작을 위한 에셋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IP콘텐츠 사업 다각화를 위한 특화된 지원정책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지역 스토리 자원화를 위해 가장 ‘국립작가원’ 설립 및 작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으로 IP콘텐츠 우수인력

을 양성·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기(2-5년) 단위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콘텐츠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콘텐츠 배경 등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의 문화 에셋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지역 IP 기반 콘텐츠를 공동 기획·개발해 순차 출시하는 IP 미디어 믹스 전략을 통한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목포수협 수산물 유통 지원사업 현장인 서남권수산물종합지원단지를 방문,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현황 청취 및 관계자,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물류센터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서남권 수산물 유통현황 점검

목포수협 방문 현장 의견 수렴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목포 북항 서남권수산물종합지원단지 내 목포수산업협조합의 수산물 유통 지원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전남도는 ‘제2차 수산가공·유통산업발전 종합계획(2022-2026년)’을 세워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을 꾸준히 확대, 유통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이날 목포수협을 둘러보며, 수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렴하고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에서 열음을 제작 중인 작업자를 격려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다수 수산물 위판장이 개방형이어서 외부 오염원에 노출돼 위생에 취약한 관계로, 지난 2020

년 목포에서 참조기와 갈치 대풍여에도 열음 대란으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에 폐쇄형 저온위판장과 자동 선별시설 구축, 제빙·저빙·냉동·냉장 시설·편의시설을 갖춘 깨끗하고 종합적인 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형 저온위판장과 자동선별시설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까지 37억 원을 들여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군특 전환사업으로 올해까지 192억 원을 들여 건립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저축액 두 배 불리는 ‘청년13통장’ 참여하세요”

시,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접수...500명 모집

광주시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살)통장’ 7기 참여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13(일+살)통장’은 월 10만 원씩

10개월간 저축하면서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광주시가 일대일 매칭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에 거주

하고 있는 만 19~34세 저임금 근로청년으로, 세전 월 소득이 68만 3,444원~191만 4,440원에 해당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선우 기자

박혜자·정성홍, 광주시교육감 출마선언 연기

입후보 예정자들 “참사 애도” 최영태, 출마 포기 의사 밝혀

광주시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들이 광주 화정아파트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출마선언 일정을 미루고 있다.

박혜자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18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예정된 시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박 전 원장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에서 일어난 이번 참혹한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사건이 진정될 때까지 출마 선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을 추모하며 남은 실종자들에 대한 무사 귀환과 안전에 유 의해서 소방당국이 끝까지 실종자 구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도 이번 주 내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하



박혜자



이정선



정성홍

지만 붕괴 참사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뜻과 함께 설 전후 기자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도 지난 12일 시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붕괴 사고로 인해 기자회견을 무기한 연기했다.

정 지부장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라는 비상 상황 속에 출마선언을 잠정 연기한다”며 “안타까운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교육감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선거 운동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영태 전 전남대학교인문대 학장이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다.

최 전 학장은 이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를 아끼고 격려, 성원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감히 교육감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광주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어보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으나 언젠가부터 그게 버거운 목표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며 “교육감 선거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선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기초의회 의원정수 관계법령 개선돼야”

김한중 도의장, 시도의회장협서 지역대표성 강조

전남도의회 김한중 의장은 18일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자치구·시·군 의원정수 관계법령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임사회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 교육·산업·문화예술 인프라 집중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구 쏠림 현상은 도시와 비도시 간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자연감소와 취업·진학에 따른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 시·도 내에서도 지역 거점도시로의 인구 편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인구수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방식에 따른 경우 인구 쏠림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구증가 지역의 의원정수는 증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의원정수는 감소하는 등 지역대표성 측면에서 심각한불균형을 일으키게 된다”며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인지하고,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초의원 정수 산정을 위해 관계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회의로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된다. /정근산 기자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